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호세아 10:12)”

#교회성폭력 #공동체적_해결 #강남역_여성혐오범죄3주기

이름이 : 새말(민는페미)

타종 : 심승미(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반주 : 조인우(향린공동체), 이종혁(혁명기도원)

●표는 모인 이들 한 목소리로

* 우리는 지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3주기를 맞아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성폭력을 고발하고, 특별히 교회 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을 다짐하려 합니다. 타종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타종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2. 예배로의 초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호 10:12)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폭력과 혐오가 계속되는 교회, 약자를 배제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애통해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불의한 이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비를 내려 주소서.

3. 찬송 -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Chords: E, F#m, B7, E, B/A, E, F#m, B7, E, B/A, E, E7/G#, A, B7, E, B/A, E, F#m, B7, E

Lyrics: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앞에 어려운일보네 주님
 날마다 주님내곁에 계셔 자비로 날감싸주시네 주님
 인생의 어려운순간마다 주의약속생각해보네 내맘

앞에이몸을말길때 슬픔없네두려움없네 주님
 앞에이몸을말길때 힘주시네위로암주네 어린
 속에믿음잃지않고 말씀속 에위로를얻네 주님

의 그자비로운손길 항상 좋은것주시도다 사랑
 나 를품에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주시도다 내가
 의 도우심바라보며 모든어려움이기도다 흘러

스레아픔과기쁨을 수고와 평화와안식을
 살아숨을쉬는 동안 살피신다약속하셨네
 가는순간순간마다 주님약속새겨옵시다

4. 회개의 기도

강남역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 앞에, 우리 교회에서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차별, 혐오 앞에 우리는 방관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5. 우리의 기도 *응답송 키리에(오세요 작사작곡, 옥바라지선교센터)

1) 여성혐오범죄 피해자를 생각하는 기도 - 임지희(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여성이란 이유로 죽임당하고, 폭력에 내몰리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죽임당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여성혐오사회의 얼굴을 보고 말았고,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외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일상에 촘촘히 얽혀있는 여성혐오의 면면을 폭로하고, 연대하며 저항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집, 직장, 학교, 일상의 모든 곳은 강남역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 혐오가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로 규정되고, 남성의 욕망을 위해 희생이 정당화되며, 혐오폭력을 당한 후에도 잘못을 추궁당합니다. 이러한 폭력과 차별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더욱 여성들을 억압하고, 배제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죽임당하고, 폭력에 내몰리는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더이상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의 희생자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제자입니다. 더이상 여성이란 이유로 위협받으며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더 크게 소리쳐 주십시오. 또한, 여성혐오범죄로 희생된 이들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깨어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Gm Gm/F Eb Bb Eb Cm7 Cm D7 Gm

키 리 에 엘 레이 손 크리스 테 엘 레이 손 주 여 우리 게 자 비 베 푸 소 서

2) 교회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도 - 박해린(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주님, 고발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부장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각자가 주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은 잊은 채 (남성)목회자의 리더십에 의존해 교회를 구성하고 신앙을 추구합니다. 남성중심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지웁니다. 여성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며 차별적인 성역할을 고착화시킵니다.

주님. 그때, 그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독 예민하게 굴었던, 불편한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 교회가 그들에게 드센 여자라고 말하고 꽃뱀이라 손가락질할 때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나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보니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저 침묵하고 중립에 서 있었을 뿐인데, 지금 모은 두 손에 우리들의 피가 얼룩져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비오니, 이제는 교회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는 고리를 끊고 피해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는 이들의 마음과 행동에도 함께 하시어서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사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 모두가 깊은 어둠 속 작은 촛불처럼 살아나 어두운 역사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억된 자들을 통하여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합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하여주소서. 간절히 마음 모아 비오니, 고통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와 교회로부터 죽임당한 영혼들의 회복까지도 함께하여주시옵소서.



3) 교회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기도 - 박세론(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그들이 울고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침묵이 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교회에 명하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교회공동체와 교단의 죄악 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중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이라는 말로 교회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교회는 침묵을 강요하고 또한 침묵하며 성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찾을 때이다" 명하시는 주님. 지금은 다시 주님을 찾을 때일 줄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는 자들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가중시

키지 않기 위해, 성폭력 가해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목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교회공동체와 교단의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치리하며 함께 책임지는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십시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명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정의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교회 안 성범죄를 각 교단 헌법 죄과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쉽게 자행될 수밖에 없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꿔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다시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십시오.

Gm Gm/F Eb Bb Eb Cm7 Cm D7 Gm

키리 에 엘 레이 손 크리스 테 엘 레이 손 주 여 우리 게 자 비 베풀 소 서

6. 특송 - 향린교회교우들 “고문”

호락 “원래 그런 거야”, “이분법”

*가사는 맨 뒷장에 있습니다.

7. 말씀 읽기 - 장미빛(갓페미)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썩레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목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 날에 자식들이 박살 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 나지 않았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호세아서 10:9-15

8. 말씀 펴기 -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조은화(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9. 성찬

- 공동집례 : 민속희(NCKK여성위원회) 김모란(성정의실현을 위한 기장 교역자모임)
- 분병, 분잔위원 : 정선덕(서울YWCA) 새로(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표는 모인 이들 한목소리로

■ 초청의 말씀

민속희 : 여인들의 친구시며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죄와 어둠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며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김모란 :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약자를 소외시키며 자기의 권력을 좇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기만과 위선에 분노하고 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사회가 혐오하던 이들을 벗으로 부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모두 나아와 함께 치유를 경험합시다.

■ 제정의 말씀

민속희 : 그리스도께서는 수난하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속희 :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고 나의 삶을 따르십시오.”

다함께 :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모란 : 그리스도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모란 :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고 나의 삶을 따르십시오.”

다함께 :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령임재의 기도 *모두 성찬상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십시오.

민속희 : 하느님, 당신의 정의로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실천으로써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 주의 기도

김모란 :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각자의 전통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 평화의 인사

민속희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당신과 함께

김모란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 빵을 쪼갬

김모란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 성찬식

민속희&김모란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초를 놓은 후, 떡과 포도주를 받으세요.

*성찬위원 성찬 후 회중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민속희 :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아멘.

김모란 :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중 : 아멘.

사랑의 나눔

사랑의나눔 있는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 성찬 후 기도

김모란 : 함께 기도합니다.

- ◎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침묵 속에 고통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에 민감할 수 있게 하소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교회 성폭력을 정의롭게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 결단의 찬송 - 두려워 마세요(황푸하 작사작곡, 옥바라지선교센터)

♩ = 66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and guitar chords. The chords are: G, C, Bm, Em, Am, D, G, C, Bm, Em, Am, D, G, C, Am, B7, Em, C, Am, D7, C, Am, B7, Em, C, Am, D7.

두려워 마세요 당 신에겐 친구가있어 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 님도우릴 붙들잖아 요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몰라 요

우리가 흘리는 눈 물의 뜻도 몰라 요

Fine

D.C. al Fine

11. 성명서 낭독 - 박지수(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이은혜(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교회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과 정의를 촉구하며

ME TOO, CHURCH TOO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차별을 고발하는 ME TOO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86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가해지목인은 담임/부 목회자(61%), 선교단체리더(7%), 교수(4%), 장로 및 교인(15%), 선후배나 친구(4%), 기타(10%)로 나타났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표방하는 다양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교회도, 선교단체도, 학교도 여성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는 곳이 될 수 없었다.

WITH YOU

교회성폭력은 더 이상 성폭력 가해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연약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성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 오·남용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교회 내에서 작동하는 ‘거룩하지 않은’ 권력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그 동안 교회성폭력이 고발되고 가해자가 지목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부재했고 피해와 가해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 또한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목회자나 직분이 높은 성도가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피해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거나’, ‘행실이 좋지 않았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가해졌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거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회는 공동체의 안위와 가해지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이처럼 교회는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할 뿐만 아니라 조장해왔다. 우리는 이제 불의한 역사를 갈아엎고 이 땅에 정의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해결과 정의

교회성폭력의 해결과 회복을 더이상 피해자 혹은 가해자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회성폭력을 정의롭게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고전12:26) 고난받는 이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난에 연대하여 교회성폭력을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3:28)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장벽도, 경계도, 위계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왔던 그동안의 가부장제 질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동안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하였다. 이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가부장제 질서를 타파하고 평등한 체제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심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교회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과 정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회성폭력이 공동체의 과제임을 직시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온 책임을 다하라.
하나, 교회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안전한 공동체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라.

2019년 5월 16일

공동주최 총 18단위

믿는페미 잇는예배,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갓페미,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위드유센터 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서울YWCA, 성정의실현을 위한 기장 교역자모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촛불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NCKK여성위원회

12. 공동축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살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각자의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결심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서겠습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깨지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모아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이 없으신 은총과 항상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문

그들이 그대의 어머니를 고문할 때
그들이 그대의 아버지를 고문할 때
그대의 형제를,
그들이 그대의 누이를 고문할 때

그들이 그대의 지도자를 죽인다면
그대의 눈물같은 연인을 죽인다면
그대를 고문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고문하여
그대의 푸른 숲 마저 사라지면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원래 그런 거야

Verse 1

힙합엔 왜 혐오가 많을까
한국 힙합은 왜 그런걸까
내 물음에 어떤 평론가 말하길 원래그런거래
그게 힙합의 역사고 원래 그런거래

난 그에게 묻고 싶어 그럼 바꿀 순 없는건지
그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역겨워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딤어

잘못된 걸 고치지 않아

누군가는 꿈을 잃고 가족을 잃어
원래 그런거니까 닥치고 참아 버텨
삼십년 참았어 참 오랜 시간
이젠 지랄하는 쪽을 택하기로

프로불편러에서 프로일침러로
조신하게 부자에게 시집이나 가란
이모 말은 무시하고
불편한 질문도 씹기로 해
대답할 의무는 없으니깐 내게

Hook*2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문제 제기하라며
막상 얘기하면 원래 그런거란 꼰대
학교 직장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래

Verse 2

요즘 난 국힙은 안 듣고 걸러
듣고 있으면 귀가 찌는 거 같아
여혐과 조롱은 힙짚이들 필수품
인스타로 팬에게 자자는 DM 받는 게 자랑?
그 찌질이 매 곡마다 가사에 써대

그리고 그녀들을 조롱해 BITCH라고
국힙 찌질이들에겐 BITCH는 빛인가봐
BITCH LUXMEA BITCH LUXMEA

남자의 욕구와 본능은 억제할 수 없대
남잔 원래 그리 태어난 애 아니면 개래
아무리 미투 터짐 뒤편
무조건 꽃뱀프레임 정치공작으로 몰잖아
세상은 바뀌는데 낡은 패러다임 고수하는 꼰대
같은 우물안 개구리는 살아남지못해
'너 피해의식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지만
난 단지 피해를 의식하고 있을 뿐이야

Hook*2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문제 제기하라며
막상 얘기하면 원래 그런거란 꼰대
학교 직장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래

이분법

Hook

1등 시민 아닌 나머진 들러리
몫 없는 잔 저기 서 깔러리
지금 대한민국 여혐민국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범죄 동일처벌
단지 평등을 외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
왜 남혐하난 소릴 들어야 돼
꼬리칸에도 서열은 있어
우리에게 설 곳은 없어
맘편히 쌀 곳도 없어
젤끝에서 움츠리다
웅크리다 기지깅 퍼
It's time to go break eggs.
It's time to go break eggs.
It's time to go break eggs.

Verse 1.

어찌하여 네 눈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 속 티를 보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 들보를 빼어라
그 후 형제 눈 속 티를 빼리라

2천년 전 예수님 말씀하셨지
자본을 섬기는 너흰 믿음없음 증명했지
자본은 가치, 교회는 건물이 됐지
헌금만 내라는 목사 나부랭이됐지

남이나 혐오하는 꼴보수 앞잡이
It's like 유대교 랍비 길라잡이
나는 거침없이 까대 모두까지
굳이 정의하자면 믿는페미

교회에선 내부의 적
한남에게 공공의 적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Only God knows.
I'm on my way
No fear men, but God
I don't give a fuck

Hook

1등 시민 아닌 나머진 들러리
몫 없는 잔 저기 서 깔러리
지금 대한민국 여혐민국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범죄 동일처벌
단지 평등을 외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
왜 남혐하난 소릴 들어야 돼
꼬리칸에도 서열은 있어
우리에게 설 곳은 없어
맘편히 쌀 곳도 없어
젤끝에서 움츠리다
웅크리다 기지깅 퍼
It's time to go break eggs.
It's time to go break eggs.
It's time to go break eggs.

Verse 2.

한남에게 여잔 성녀 아님 창녀
지네 엄만 성녀
클럽에서 못꼬신 여잔 창녀
김치녀와 개념녀로 나누지
컴퓨터 프로그램 같지
0 아니면 1
이진법으로 짜여진 세상
이분법으로 쪼개
니편 아님 내편
내편 아님 꺼져

혐오와 배제 속 편가르기 내로남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자 페민 개념남
여자 페민 메갈년
대통령도 페민데
메갈이란 욕은 안 먹네

같은 책 읽어도 반응은 완전 다르네
여들은 꼴페미로 찍히는데
국민MC는?